

한동구(평택대)/송두호(극동대)

1. 문제의 제기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선조들은 오랜 기간동안 생존하면서, 타민족과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하였고, 타민족과의 접촉은 종종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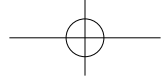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창세기 13장에서는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가족 내부의 갈등이 보도되며, 창세기 21장 22-34절, 창세기 26장 12-35절¹⁾과 출애굽기 2장 등에서는 우물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와의 분쟁도 보도된다. 또 많은 경우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억압하기도 하였으며, 부당

※ 본 연구는 한동구(구약신학)와 송두호(리더십연구)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음.

1) 한동구, "삶의 터전의 분쟁과 해결,"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373-396을 참조하라.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해결을 위한 성서적 가치의 적용 | 한동구/송두호 153

www.kci.go.kr



한 횡포 및 성적 폭력도 일삼았다(예를 들어 창 12:10-20; 창 19장; 창 20장; 창 26:1-11; 창 34장; 삼하 13-14장).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부정적으로는 폭력 대 대응 폭력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도 있으며(창 34장; 삼하 13-14장), 이와는 달리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칙과 가치를 형성해 왔다.

원칙과 가치에 의한 갈등해결의 성서적 가치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여, 교회가 지역 갈등 해결의 모형으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서에서 원칙과 가치에 의한 갈등해결의 모형을 이끌어 내어, 이를 ‘갈등 및 분쟁해결의 관리모형’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 모형을 군산지역에서의 송전탑 건설로 인해 야기된 갈등해결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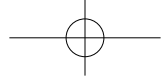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 갈등해결의 성서적 원칙²⁾과 가치(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겪은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한 선례들로부터 그 정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한 가족 공동체

구약성서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상은 ‘온 세계의 한 가족 공동체’이다. 구약성서의 다양한 족보의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가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족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창조적 권능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온 세계의 다양한 구성원을 한 조상의 후손으로 묶어 가족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³⁾

2) 한동구, “아브라함의 비전,”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195-221을 참조하라.
3) 월터 브루거만/강성열(옮김),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한 가족 공동체의 이상에는 야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로 분리되지 않는다. 모두가 한 조상의 후손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며, 모두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신약성서에서는 혈통의 원리를 극복하고, 믿음을 통한 한 가족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상은 분쟁과 갈등의 해결에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갈등에 연루된 자들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가족의 일원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2) 평화로운 분쟁의 조정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방들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극복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들도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한다. 브엘세바에서의 우물의 분쟁 사건(창 26:23-33)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보도한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임을 알고(창 26:29), 이삭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상호(불가침)의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이 보다 앞서 아브라함은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는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값, 암양(새끼) 일곱 마리를 지불한다. 군사적 물리적 힘의 우위에 근거하거나, 야훼께 속하였다는 종교적 우월성에 근거한 일방적 소유권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그에게 정당한 값을 치루고 소유권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리적 힘에 의한 인정의 강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킨다. 때로는 인정을 받기 위해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질적 보상만으로는 화해를 이

152. 원제는 W. Brueggema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원칙에 의한 문제 접근이어야 한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는) 창세기 20장은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으므로 죽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창 20:3; 참조 신 22:22).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라에게(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말하면서(창 20:4), ‘집단적 처벌로 인해 무죄한 자를 함께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창 20:4bβ). 또한 아비멜렉은 ‘개인적 차원에서 무죄하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죄가 있는 자만이 처벌해야 한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회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生)과 사(死)의 결정’은 ‘사라를 돌려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무조건적인 죽음(혹은 처벌)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는 민족적 편견, 지연과 혈연에 입각한 차별이 사라진다. 또한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구약성서에서는 원칙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해 짧은 문장으로 가치표준이 형성되었다:

“너를 친절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할 것이며,
너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할 것이다”(창 12:3a)

이 짧은 가치표준의 문장에는 믿는 자들과 이방민족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방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표준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자율적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자기 중심적 성격에서 벗어나 타자 지향적으로 전환하게 한다.



4) 가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원칙에 근거한 문제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에는 항상 이해관계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 집단 배후에는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 할 때, 다양한 충돌 요인들 가운데 가치의 충돌도 있다: 군사적 가치를 주장하는 집단과 자연 환경의 보존의 가치를 주장하는 집단이 충돌하였다.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지향하는 바는 가치의 공동체이다. 구약성서에서는 다양한 비전들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다양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에스겔 공동체가 추구한 비전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성의 확산이다. 이 거룩성은 죽음을 생명으로 전화시키는 힘(기 때문이다. 또한 오경에서는 웅대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의 만남’, 즉 거룩성의 근원을 지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그려주고 있다.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한 남은 자의 공동체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자들이란 정결성과 거룩성 위에 새로워진 자들이다.

‘거룩한 백성’의 비전은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세계를 향한 섬김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임을 말하고 있다.

한편 시온을 향한 온 세계의 순례의 비전에서는 야훼의 말씀을 중심적 가치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명기의 호렙산 전승에서 유래된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적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다. 세계의 중심은 힘의 논리가 아닌 바른 삶의 원리를 통한 세계의 변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역사는 야훼의 창조적 권능과 세계의 만민들이 따라야 하는 바른 삶의 도에서 시작된다.

성서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모든 가치들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 최소한 한 국



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거나 이를 넘어 설 수 있게 한다. 둘째, 성서의 가치들은 모두 타자 지향적 가치들이다. 이 가치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타자 중심의 세계관을 지향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타자의 하나님과 타자와 섬김의 공동체 형성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타자 사상은 신약성서에 완전히 발전된 사상으로 나타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다(창 18장). 이는 ‘주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그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찾아온 것’(마 25:35-36)과 동일하다.

레비나스(E. Levinas)는 ‘하나님께서서는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약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한다.⁴⁾ 다시 말하여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

아브라함 공동체에서는 가치표준을 통하여 자아중심적 세계관을 극

4)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와 신을 동일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나(=자아) 아닌 타자이기 때문이다. 콜린 데이비스/김성호(옮김), 『엠마누엘 레비나스 - 타자를 향한 욕망. 레비나스 입문』(서울: 다산글방, 2001). 원제는 Colin Davis, *Levinas. An Introduction.*

5) 한정선, “레비나스, 신의 흔적에 대한 현상학,” 『신학과 세계』 제 42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1), 336-355, 특히 346.



복하고,⁶⁾ 타자 중심의 세계관을 수립하고자 했다.⁷⁾ 가치 표준에서 나타 내 주는 바,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느냐하는 여부가 자신의 축복과 저주 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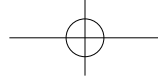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타자의 존중은 아브라함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보여주고 있다. 아베 델렉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창 20:15). 그는 자신의 땅에 기꺼이 이방인을 받아들였다.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 표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강한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야훼의 적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경건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어, 세계를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말하게 한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야훼의 도와 정의와 법을 전해야 하고, 온 세계는 이러한 바른 삶의 도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가운데 야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온 세계에 야훼 하

6) 서양철학은 존재론의 역사로, 타자(the Other)를 동일자(the Same)로 환원시키고 타자성 또는 이타성(異他性)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킨다. 그는 이러한 존재론을 동일자만 인정하고 타자를 무화시키거나 중간 매개물에 예측시키는 일종의 폭력적 철학이자 테러의 철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참조 E. Levinas/Alphonso Lingis(윤김),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Dordrecht et 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43-44.

7) 그래서 레비나스는 존재론에서 타자의 철학을 위해 윤리학을 주장한다. 참조 민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명령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7), 121-127의 재인용.



나님의 축복을 중재하는데 있다.

3. 갈등 및 분쟁해결의 관리모형 연구

오늘날 기업 내부와 외부간의 갈등 및 지역 간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 그 동안 다양한 학문 영역, 예를 들면 경영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연구를 해왔으며, 또한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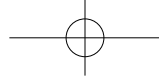
이들 연구들, 특별히 행정학에서는 갈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⁹⁾을 제시 하였으며,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갈등조정자들의 태도나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들 연구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전 과정을 통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갈등 해결 접근방식은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더들리 위크스(Dudley Weeks)는 최고 수준의 갈등 해결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계의 강화를 강조한다.¹⁰⁾ 관계의 강화는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에서 형성된다.

8) 벤스(Ingrid Bens)는 갈등 접근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며, 토마스 킬만의 갈등 대응모형 5가지를 토대로 다섯 가지 해결 방식, 즉 회피 방식, 조정 방식, 타협 방식, 경쟁 방식, 협력 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잉그리드 벤스(Ingrid Bens)/이영석·오동근(역), 『퍼실리테이션 쉽게하기』(서울: ORP연구소, 2006), 165-169.

9) 일반적인 갈등 사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인지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접근방법이 있다. 인지적 접근방법에는 근거이론(ground theory)과 프레임이론(frame theory)이 있다. 제도적 접근방법에는 제도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과 규칙이론(rule theory)이 대표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전략 탐색』 KRILA Focus 제 35호 (2011. 5), 3.

10) 더들리 위크스(Dudly Weeks)/남궁은정·이현정(역), 『갈등 종결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9.



1) AGREE 모델

갈등 및 분쟁의 종합적인 해결 모델인 AGREE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각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5요소(Acknowledge - Ground Rule - Reframe - Explore - Evaluate)의 첫 글자를 따서 AGREE 모델이라 부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갈등 존재 확인(Ac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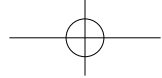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는 갈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목표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먼저 현상을 말하게 한다.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며, 그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둘러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논쟁점을 제거하고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분명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갈등존재확인 단계는 사실관계(fact)에 대한 정확한 인식, 쟁점의 바른 파악 등을 위한 것이고 사안과 관련하여 비현실적 기대와 편견이 제거되는 것을 지향한다.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하게 되면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해석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투영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쉬운 작업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중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역할관계나 역할, 결정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점검하고 구성원들을 협력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2단계) 기본규칙(Ground Rule)

이 과정에서는 갈등 상황에 맞추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모든 토의에서는 어느 때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잠



재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규칙은 참석자들이 합의된 행동수준을 규정하여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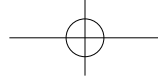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기본규칙 제정을 위해 “만일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격한 논쟁을 펼치는 대신에 건전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기록하여 상호간에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여 설정한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기본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생각 할 수 있다:

- 한 사람씩 발언하고, 다른 참가자가 발언하는 도중 간섭하지 않는다.
- 발언 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회의 중 상대방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다.
- 논의 과정 중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 고의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토론을 방해하지 않는다.
- 상대방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3단계) 갈등 재구성(Reframe)

이 과정에서는 갈등해결 과제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먼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말하게 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 때 서로의 입장(Position) 뒤에 숨어 있는 관심사(Interests)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여 상대방의 핵심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악된 핵심관심을 가지고 서로간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갈등 해결에서 문제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는 것으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작은 사항이라도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공통점을 요약하고 확인하여 정리한다. 다음, 해결 과제를 긍정적인 것으로 재구성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기된 갈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 객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면 갈등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여 인신공격으로 치다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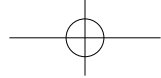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4단계) 해결방안(Explore)

이 과정에서는 갈등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목표이다. 브레인스토밍¹¹⁾ 기법들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 대안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은 삼가고, 대안들이 충분히 개발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고려하기 위해 세분화(Breakdown)하기도 하고 합쳐(Grouping)보기도 하면서 상호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5단계) 최선의 해결책(Evaluate)

이 과정에서는 해결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이

11)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하여 벤스 잉글리드(Bens, Ingrid)/이영석·오동근(옮김), 『퍼실리테이션 쉽게하기』, (서울: ORP연구소, 2006), 274참조.



목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 방안에서 찾은 대안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을 브레인스토밍 하여 상황에 맞는 핵심 평가기준을 선택한다. 이 기준은 상대방과 우리 측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선정된 핵심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대안들을 평가하여 해결책을 정하여 최적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AGREE 모델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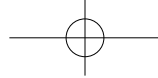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 다름(difference)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서로 간의 다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시스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¹²⁾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ory decision making)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참여의사 결정 방식에 활용되는 기법으로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ing) 등이 있다¹³⁾.

AGREE 모델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AGREE 모델은 훨씬 간단하면서도 쉽게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적용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효과를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소개된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1단계 갈등예측, 2단계 참여

12)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편),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02-01), 4.

13) 국무조정실(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18-31에서 4가지 기법 -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매뉴얼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숙지하기에도 쉽지 않다.



절차 모색, 3단계 합의도출, 4단계 이행여부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단계와 3단계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참여 절차와 합의’라는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AGREE 모델의 5단계는 참여와 합의 도출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AGREE 모델의 각 단계를 따라 진행하게 되면 나름 통합된 관점과 방향에서 갈등상황을 대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GREE 모델이 지향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은 성서의 ‘온 세계의 한 가족 공동체’ 사상과 일치한다. 갈등에 연루된 자들을 물리적 힘으로 배제해서는 안되며,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규칙의 제정’에서 볼 수 있는 정신도 갈등과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전제한다. 평화로운 해결의 출발점은 갈등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 일방적인 제정과 강요는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킨다.

3) AGREE 모델의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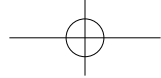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참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인 AGREE 모델은 갈등해결의 성서적 원칙과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일부 보완할 점을 발견하게 된다.

(1)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철학이 수반된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히즈키아스 아세파(Hizkias Assefa)의 글을 인용하여 갈등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규명되고 다뤄지지 않는 한 갈등해결은 이뤄질 수 없다.

둘째, 갈등 해결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Base Human Needs)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설정을 의미한다.¹⁴⁾

더들리 위크스(Dudly Weeks)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전체 관계를 강조한다: ‘나’ 대 ‘너’가 아니라 ‘우리’로 보아야 한다. 관계를 개선해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¹⁵⁾ 또한 참가자들은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갈등해결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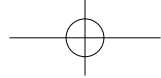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AGREE 모델에서도 이와 같이 원칙들이 언급되어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적 원칙들을 통해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집단적 차원의 처벌의 부당함과 무죄하다는 아비멜렉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가 있는 자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인과 관계가 분명히 성립되는 관점이나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생과 사의 결정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민족, 종교, 혈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입각한 차별과 문제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되기에 민족들이 자율적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 성격에서 벗어나 타자지향적으로 전환하게 한다.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편),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지속위 자료집 2005-17,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샵 교재, (2005. 9. 5-9. 9), 40-41. 히스키아스 아세파(Hizkias Assefa)/이재영(역),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Korea Anabaptist Press, 2007), 19-21 참조.
15) Dudley Weeks, 위의 책, 66-70.



이러한 세 가지 원칙들을 2단계 기본규칙 과정에서 다른 규칙과 함께 필요한 원칙으로 합의하여 설정하도록 진행한다.

(2) 가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

갈등 유형 구분에 있어서 어떤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다양한 구분 방식이 있지만, 갈등 발생의 원인을 흔히 이익갈등 (Interest Conflict)과 가치갈등(Value Conflict)의 기준으로 하여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이익갈등은 이해관계나 욕구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가치갈등은 가치 신념체계 또는 이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때로는 가치가 공공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성의 문제로 대두되기에 누가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이 이해관계의 갈등과는 달리 서로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염두에 두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¹⁶⁾

성서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공공선이라는 가치와 유사한 개념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지속을 위해 서로의 가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되 작은 이익 집단에서 벗어나 민족과 전 세계가 공존하도록 이해관계를 통합하거나 넘어서게 하고 타자 지향적인 가치를 통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타자중심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가치 기준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마지막 단계인 5단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핵심 평가기준과 함께 설정하여 대안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을 통해 서로 간에 차이나는 핵심가치관을 아우르는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앞의 책, 199.



(3) 타자와 섬김의 공동체 형성

성서의 원칙과 가치들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성서는 가치 공동체를 지향한다. 성서의 가치인 타자 중심의 세계관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섬김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러한 섬김의 정신은 갈등 해결과 화합의 열쇠가 된다.

AGREE 모델에 약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된다면 갈등관리나 갈등해결과 관련해서 사회적·문화적 인프라의 토대가 될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얻게 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상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기대나 선의(Good Will)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가 불투명한 갈등관리 절차에 위험을 감수하거나 희생하면서까지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따르게 한다.

AGREE 모델이 이 목표를 지향할 때 교회공동체는 축복의 중재자로서 화해와 평화의 궁극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4. 군산 송전탑 건설 사건에 적용

이제까지 검토한 성서적 가치를 적용하여 형성한 AGREE모델을 군산 송전탑 건설 사건의 갈등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다음에 이를 AGREE모델에 적용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갈등 해결과정에서 성서적 가치가 충분히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 ① 새만금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전력의 수요가 높아졌고, 특별히 전력수요가 높은 동양제철화학, 세아베스틸 등의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확대하면서, 새만금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② 2008년 2월 8일 동양제철화학(주)로부터 전력공급방안을 의뢰받은 군산시는 군산전력소(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와 새만금변전소(군산시 산북동)를 연결하는 총 30.4km 구간에 345KV급 송전선로, 송전탑 88기, 변전소를 건설할 것을 계획한다.

2008년 8월 군산시는 새만금 및 군산지역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건설계획’을 군산시의회에 보고하지만, 2008년 10월 31일 군산시의회는 주민설명회 미개최 및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양해각서(MOU) 체결의 연기를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군산시는 2008년 11월 10-13일에 6개 읍면동(임피, 회현, 대약, 옥구, 나운3동, 미성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별 소규모로 주민설명회를 분산하여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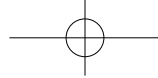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이를 근거로 군산시는 2008년 12월 11일 한국전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 26일에 송전철탄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총회가 개최되고, 회현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¹⁷⁾

③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월 15일에 군산시에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입안을 요청하고, 2009년 5월 7일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시행한다.

2009년 3월 19일 회현주민 400여명이 송전철탄 반대 및 지중화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투쟁이 시작된다. 2009년 4월 2일에 반

17) 공동반대대책위는 6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소규모로 여러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고 고찰 할 수 없었다. 목회자대책위원회와 공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일되었다. 공동반대대책위원회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책위원회가 군산시에 송전선로 경과지변경안 제출했다.

2009년 4월 19일에 군산시가 정부부처(국민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에 송전선로 경과지변경안과 지중화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다.

그럼에도 군산시에서는 2009년 5월 25일에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송전선로 및 변전소) 결정공고가 내려졌다.

④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제 1차 공람회를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으나, 회현면 옥구읍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다.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제 2차 공람회를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한다. 2010년 9월 27일 주민대책위원회(대야, 회현, 옥구, 미성)가 군산시청에서 500여명이 송전철탄 반대집회를 했다.

⑤ 2011년 9월 19일에 군산시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변경결정고시를 내렸고, 2011년 11월 1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는다.

이에 2012년 2월 14일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인근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지역주민들은 2012년 2월에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대안노선 검토를 의뢰함과 동시에 2012년 3월에 군산시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과 '송전선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⑥ 2012년 3월 이후 지역 주민들의 긴 반대투쟁이 계속된다. 2012년 3월 3일 옥구읍 선제리 일대 한전과 주민들 간 몸싸움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부상당한다. 2012년 3월 31일 대책위는 지역주민 500여명과 군산시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4월 18일 옥구읍, 선제리 일대 철탄공사를 위한 지질공사 중 한전과 주민간 몸싸움이 재



차 발생하였다.

2012년 5월 10일 주민들의 요청에 목회자 대책위원회¹⁸⁾도 구성된다. 2012년 5월 20일 옥구읍 목회자대책위원회 주관으로 3개 지역 대책위원회 협력 하에 옥구교회당에서 연합예배 및 결의대회, 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⑦ 2012년 8월까지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증석리, 학당리)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하지만, 나머지 회현면(대정리, 월연리),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대책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⑧ 주민들은 새만금 내부 두 쪽으로 우회하는 송전선 대안노선을 제시하고, 한전은 대안노선이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요인이 되는지를 미군부대 측에 질의했으나 비행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한전에서 대안노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최저 50미터, 최대 75미터)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⑨ 주민대책위는 2013년 10월 1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이 14차례에 걸친 협의, 면담 등을 통해 대안노선관련 송전탑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3가지 쟁점(▲송전탑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39.4m)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미 공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높이 등의 질의안)이 제시되고, 미군부대에 대안노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질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합의한다: “미군에 송전탑 높이를 원래 계획(50-70m)에서 39.4m까지 낮추면 비행기 운항이 가능한지를 다시 질의한 후 지장이 없다면 대안 노선을, 지장을 준다면 원래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한다.”

국민권익위가 대안노선 수용여부에 대해 2013년 12월 5일 미 공군측

18) 6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 교회의 목회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참여하였다.



에 질의하고, 2014년 6월 9일 미 공군으로부터 답변서가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는 ‘미공군 비행 표준국’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비록 지상에서의 최소한의 높이라 하더라도 제안된 서쪽 노선은 심각한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비행 운항 신호의 사용 불가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업 및 민간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제안된 서쪽 선로가 지중화된다면 비행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미 공군측은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으므로, 원래 계획한 노선을 따라 공사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2)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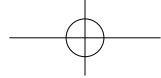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008년부터 사업자(군산시와 한전)와 주민간의 충돌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송전탑 건설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되어 어느 경우든 공사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의 갈등해결 과정을 AGREE 갈등해결 모델과 비교하여 검토해 본다.

(1) 갈등 존재 확인(Acknowledge)

이 과정에서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는 국민권익위원회¹⁹⁾가 중재자로 활동하였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반대대책위원회와 목회자대책위원회가 활동하였으며, 그 반대편 당사자로 군산시와 한전이 있다.

19) 주민대표들은 일방적 투쟁을 중요수단으로 하는 외부단체의 협력을 거절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재자로 선택했다.



갈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공통의 인식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서로 간의 갈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공동반대대책위원회는 대안노선을 주장하였고, 한전은 기존 노선만을 고집하여 참여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키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련한 2013년 10월 17일의 대책회의에서 ‘대안노선관련 송전탑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3가지 쟁점’(위 사건개요 ⑨를 참조)을 제시했다. 이것은 그동안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보여 온 상황에서 벗어나 ‘대안노선관련 송전탑 설치 가능여부’라는 갈등의 핵심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책회의에서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거나 고수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제대로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본다.

(2) 규칙 제정(Ground Rule)

대책회의가 총 14회나 개최되었으므로,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규칙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내용과 의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갈등 존재를 확인하여 핵심 쟁점을 찾아내어 3가지 질의를 도출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은 결과 공통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6년간을 끌었던 송전탑 건설의 갈등 사업은 상호불신이 고조되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들과 한전 간의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갔다.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모든 대화의 초점과 방향이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신뢰 회복으로 나타



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전은 앞에서는 대화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뒤로는 공사를 감행하는 모습이나 물리력 사용을 포기하고 조정안이나와 협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임하였다. 반대대책위원회도 모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설득력 있는 근거나 타당성에 근거하여 최종 합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였다.

(3) 갈등 재구성(Reframe)

6년 동안 양보나 타협 없이 대치해 왔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에 요구되는 전력수급 상황이다. 2012년 말, 한전은 109만kV라고 주장했고, 대책위는 84만kV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해상풍력과 연계한 공사비 절감에 대한 것이었다. 대책위원회는 1천억원이 절감된다고 하였고, 한전은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어 계통연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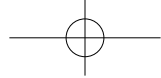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셋째,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지중화 공사비였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72조에 준하는 내부방침이라고 했고, 대책위원회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한전이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였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액을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 재산손실액은 1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가하락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버텼다.

다섯째,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관한 것이었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기준이 883mG라고 했고, 대책위원회는 4mG을 제시하는 등 의견의 간극이 너무 컸다.²⁰⁾

이러한 쟁점에서 벗어나 대안노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 해소

20) 국민대통합위원회(편), "우수사례, 군산시의 새만금 내부독 우회 송전선로 건설 합의," 2014, 163-164.



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서 대안 노선이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하면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보여 주어²¹⁾ 대안노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2013년 10월 29일에 열린 대책회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 6구역내 철탑높이를 40m로 일괄 적용하여 권익위원장 명의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미군측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한전은 미군답변을 수용하고 대안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고, 대책위원회는 미군이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한 답변을 내놓을 때만 수용하고 다른 노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갈등 재구성을 한다면, ‘대안 노선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용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는 원만한 보상과 함께 당초 노(로)선으로 공사한다’는 것이다.

갈등 재구성은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긍정적인 표현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4) 해결방안(Explore)과 최선의 해결책(Evaluate)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상호의 입장반영을 최대화하는 해결책을 채택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과 5일에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대안노선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각자의 기준을 제시한다. 대책위는 철탑의 높이가 35-40m일 경우 전문가 위원회 또는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하여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전은 기술상 설치 가능한

21) 위익글, 167.

22) 위익글, 165.



최저높이인 39.4m 이하로 설치가능한지 사전 검증 후 미군측에 질의하고 주장했다.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가 35m-39.4m 수치로 회신되는 경우, 그 높이에서 송전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검토하고 대책위원회와 한전은 그 검토 결과를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군부대에 질의하는 송전탑 높이를 40m가 아닌 39.4m로 일괄 설정하여 질의하고, 그 답변을 양측이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결실을 보게 된다.²³⁾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결안을 적용할 때 최적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실행 및 이행 여부 또한 높일 수 있다.

3)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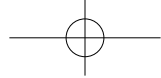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권익위의 중재로 대책위와 한전간의 군산 송전탑 합의 과정에서 적용된 가치를 앞에서 언급한 성서의 가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가족 공동체 가치와의 비교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서로를 인정하며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민들과 한전 간에 물리적 충돌로 상호불신의 벽만 높아져 갈등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한전은 공사 강행을 위해 용역회사 사람들을 매일 150명씩 3일 동안 동원하여 첩탑공사를 막는 주민들에게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매도하거나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군산시 관계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집요하게 주민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 가지 이권을 내세움으로써 주

23) 위의글, 166.



민들 사이에 균열을 가져오려고 했고, 실제로 이러한 시도로 주민들의 갈등관계가 깊어지게 되었다.

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바쁜 모내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모내기를 하다 말고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 방해를 시도하였다. 철탑 건립 기초공사 현장에서 옥구읍, 회현면 주민 70여명이 농기계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였으며,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6개소의 감시초소까지 설치해 밤샘경계를 하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부상자가 8명이나 발생했으며 총 25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밀양지역 송전탑 못지않은 갈등이 지속하였다.

그러나 권익위의 중재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서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 갈등 해결을 위해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서의 한 가족 공동체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평화로운 분쟁의 조정자 가치와의 비교

초기에는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주민들은 맞서서 저지함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태로 빚어졌다. 이후 주민들은 폭력사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목회자대책위는 주민들에게 원색적이고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며 “불만과 분노를 그대로 분출할게 아니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또한 송전선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식지 10만 부를 목사들이 자비로 만들어 군산시내에 뿌렸다. 일부 외부 단체가 “연대 투쟁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했다. 목회자 대책위 주관으로 여러 번의 기도회와 걷는 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음악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는 극단적 투



쟁으로 더 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과격한 투쟁을 선호하는 제 3자 외부세력의 도움을 거절하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는 물리적 수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노력으로 상호를 인정하는 길을 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로운 분쟁의 조정자의 성서적 가치가 잘 반영된 것이다.

(3)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의 가치

주민들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하기 위해 각자의 원칙이 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전문가 위원회 또는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최소 높이의 송전탑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는 외부의 객관성 있는 평가를 존중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단체의 연대 투쟁을 ‘힘으로 굴복 강요’보다는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을 추구였다. 이러한 입장에는 성서에서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문제해결의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가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

주민들은 갈등의 침예한 쟁점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대책회의에 임하였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권익위에서 대안노선이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시켜주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 넘어 국가 안보라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갈등 해결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보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중재안이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한 답변을 내놓을 때는 수용하겠다고 함으로써 객관적인 타당성과 공정함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가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가치에 근거한 문제 해결의 성서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까지 언급한 가치들을 지향하며 합의에 도달하여 갈등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군산 지역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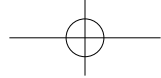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5. 결론: 요약 및 계속과제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경험 속에서 얻은 성서의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여 성서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성서적 가치를 주로 오경, 특별히 창세기에 찾았다:

- 1) 한 가족 공동체
- 2) 평화로운 분쟁의 조정자
- 3) 원칙 중심의 문제 해결
- 4) 가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
- 5) 타자의 하나님과 타자와 섬김의 공동체 형성

구약의 다른 본문,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 찾는다면, 더 많은 갈등 해결을 위한 성서적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 해결의 성서적 가치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리더십 연구에서 갈등 해결의 모델로 실제 사용하는 AGREE 모델을 성서적 가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약간의 보완점과 함께 이 모델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틀을 갈등해결의 현장에는 실제 적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군산지역에서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발주측(한전과 군산시)과 주민(대표로 반대대책위원회와 교회대책위원회가 활동함)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평화롭게 해결했다. 이 과정을 AGREE 모델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여기에서 성서적 가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성서적 가치는 현대적 삶에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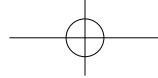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따라서 필자는 개 교회 혹은 교회 연합체가 한국 사회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선교적 확산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6. 참고문헌

-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편),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02-01).
- 국무조정실(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주요정책 자료, 2013, 9).
- 국민대통합위원회(편), “우수사례, 군산시의 새만금 내부둑 우회 송전선로 건설 합의,” 2014.
- 위크스 더들리(Weeks, Dudley)/남궁은정·이현정(역), 「갈등 종결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데이비스, 콜린/김 성호(옮김), 「엠마누엘 레비나스 - 타자를 향한 욕망. 레비나스 입문」(서울: 다산글방, 2001). 원제는 Colin Davis, Levinas. *An Introduction*.
- 민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령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7).



- 벤스 잉글리드(Bens, Ingrid)/이영석·오동근(옮김), 「퍼실리테이션
쉽게하기」(서울: ORP연구소, 2006).
- 브루거만, 윌터/강성열(옮김),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
한 주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52. 원제는 W.
Brueggema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아세파 히스키아스(Assefa, Hizkias)/이재영(역), 「평화와 화해의 새
로운 패러다임」(서울: Korea Anabaptist Press, 2007).
- 지속가능발전위원회(편),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지속위 자료
집 2005-17,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워크샵 교재, (200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전략 탐
색」KRILA Focus 제 35호 (2011. 5).
- 한동구, “삶의 터전의 분쟁과 해결,”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
(경기도 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373-396.
- 한동구, “아브라함의 비전,”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경기도
용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195-221.
- 한정선, “레비나스, 신의 흔적에 대한 현상학,” 「신학과 세계」제 42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1), 336-355.
- 홍성만/이강원,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
석」(사)한국행정학회, 2013, 9.
- Levinas, E./Alphonso Lingis(tran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Dordrecht et 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검색어

성서적 가치
평화로운 분쟁의 조정자
타자의 하나님
갈등 해결의 모델
AGREE모델
군산지역 송전탑 건설 분쟁

Applications of Biblical Values to the Local Communities for Conflict-Solving

- Management of Social Issues through Principles and Values -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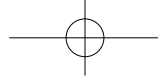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Doo-Ho Song, Ph.D.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iblical values witnessed in the various cases of conflict and strife in the Bible, and extending their applicability to the realm of actual lives. For this,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the Pentateuch, especially the book of Genesis, in order to seek biblical values for conflict-solving.

1) Familial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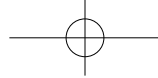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 2) Mediators between two parties for settling conflicts
- 3) Principle-oriented resolution
- 4) Problem-solving on the basis of values
- 5) Concept of God as for all human beings and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for serving others

We may add more biblical values to these if we continue to look into other places in the OT besides the Pentateuch, and also the N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biblical values in present situations, this study delves into the AGREE model, which is used for conflict-resolving in the area of leadership. We were able to confirm, in conclusion, that this model, with slight modification, is applicable as an important tool for conflict-solving.

However, we could not apply this model to an actual situation for conflict-resolving. Nonetheless, we found a test case for this model. Over the issue of building a power transmission tower, there arose a conflict between residents in Gunsan City - both the emergency body and the Christian association working as its representative - and the parties to the construction (Korean Electric Power Corp. and the Gunsan municipal office). In the mean-time, a committee for citizens' interests, known as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problem peacefully. The present writers have applied the AGREE model to the ongoing process, and tried to find out how biblical values worked in the process of conflict-resolving. In doing so, we were able to testify that biblical values for conflict-resolving can also be used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The present writers wish that an individual church or a local Christian union might play a practical role in addressing various issues arising from



every corner of society in this country. By doing so, the Korean church would accomplish an effective expansion of the gospel.

Keywords

Biblical value

Peaceful mediator for conflict-solving

God of others

Conflict-solving model

AGREE model

Strife of transmission tower plant in the district of Gunsan

- 투고일: 2015년 01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2월 06일